

# “남원 명소 알리자”...드라마 ‘지리산’에 통큰 지원

### 전지현·주지훈 주연 뱀사골 등 주 배경 촬영...지역상권도 훈풍 남원시, 제작사 에이스토리외와 제작 비용 20억원 지원 업무협약

남원시가 전지현·주지훈 주연의 드라마 ‘지리산’에 통큰 제작 지원을 한다.

남원과 지역 명소인 지리산 뱀사골 등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남원시는 이환주 시장을 비롯해 드라마제작사 에이스토리 이장백 대표, 바람픽처스 최호성 본부장, 스튜디오드래곤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라마 ‘지리산’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남원시는 tvN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인 드라마 ‘지리산’의 제작비로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원시가 드라마 제작비로 이런 거액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투자 대비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리산’ 제작사인 에이스토리는 이같은 지원 대가로 지리산 일대 남원의 명소를 드라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드라마의 주 배경이 남원의 지리산 뱀사골인데, 그 밖에도 우리가 추천하는 지역 명소에서 최대한 촬영을 하게 될 것”이라며 “드라마 노출을 통한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이에 따라 행정조직을 동원해 드라마 촬영지로 적합한 만한 ‘비경’을 찾고 있다.

에이스토리는 뱀사골 인근에 짓는 세트장도 촬영이 끝난 뒤 남원시에 넘겨주기로 했다. 드라마가 성공하면 세트장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남원시는 이 세트장을 산악체험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은 뱀사골 일대 지역 상권에도 훈풍을 불어넣어 줄 전망이다.

벌써 대규모 촬영이 있는 남에는 뱀사골 일대 음식점과 숙박업소들이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특수를 누린다는 후문이다.

다만, ‘지리산’이 기대 만큼의 흥행실적을 올리지 못한다면 시가 기대하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남원시와 드라마제작사 에이스토리 등은 지난 23일 시청에서 드라마 ‘지리산’의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 제공>

이 작품은 지리산을 누비며 조난자들을 구하는 국립공원 레인저들에 관한 미스터리극이다.

배우 전지현과 주지훈이 주연을 맡고 ‘강림’, ‘시그널’ 등의 극본을 맡은 김은희 작가와 ‘미스터 션샤인’, ‘도깨비’, ‘태양의 후예’ 등을 연출한 이응복 감독이 참여한다. 16부작으로 제작되며 내년 방영될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시, 수제화 장인 육성 ‘청년 메이커센터’ 건립

정읍시가 수제화 장인 육성을 위한 ‘청년 메이커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24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들에게 어려운 취업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메이커센터’를 건립한다.

청년 메이커센터는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 일자리 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사업이다.

수제화 기능인의 노령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수제화 사업을 지방의 저렴한 땅과 인력 공급을 통해 비교적 쉬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정읍 특색의 수제화 분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다.

청년 메이커센터는 수성동 525-41번지 일원에 국비 7억원, 도비 4억원을 포함 총 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연면적 753㎡의 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열악한 환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센터에는 4차산업 시대에 맞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메이커(maker)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장이 들어선다. 또 교육 수료 후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준비공간과 작업실, 회의실 등이 마련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문화생활은 남원에서...

### 남원시, 복합형 공공도서관 2023년 건립

남원시는 2023년까지 119억원을 들여 ‘세대 어울림 복합형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도서관은 남원 금동에 지상 4층, 연면적 3000㎡ 규모로 건설되며 자료실, 열람실, 커뮤니티 공간, 동아리 연습실, 다목적 스튜디오 등을 갖춘다.

새 도서관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더한 게 특징이다.

남원시는 행정 절차를 거쳐 2022년 공사에 착공, 2023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정부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9억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남원시는 세대어울림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을 통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는 물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체험형·참여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으로 미래형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가 세대 어울림 복합형 공공도서관을 오는 2023년까지 건립한다.



정읍 내장산수목원에 꽃무릇이 만개해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정읍시 제공>

## 정읍 내장산수목원 꽃무릇 만개...초가을 정취 물씬

### 저수지·조각공원 인근 군락지 형성 방문객 발길 사로잡아

정읍 내장산수목원에 꽃무릇이 만개해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24일 정읍시에 따르면 내장산수목원 꽃무릇은 내장산 저수지를 지나 조각공원 인근에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다.

수선화와 식물인 꽃무릇은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뿌리에 강한 독성을 지닌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절집을 단장하는 단청이나 탕화 보존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 사찰 주변에 꽃무릇을 많이 심었다고 전해진다.

꽃무릇은 9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 보름 정도 만개한 뒤 서서히 꽃잎을 떨군다. 긴 속눈썹처럼 아름다움을 뽐내듯 하늘 위로 솟은 긴 수술이 인상적이다.

내장산수목원 안의 꽃무릇 군락지에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시민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다.

또 곳곳에 쉴 수 있는 벤치도 놓여 있어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가을 나들이하기에 제격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평생교육은 익산에서...

### 익산시, 학습관·문해센터 건립 교육도시 입지 강화

익산시는 평생학습관과 부설 문해교육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평생교육도시 입지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평생학습관 등은 오는 10월 신청사로 이전되는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들어선다.

익산시는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주민과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학습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학습관에는 강의실, 세미나실, 멀티미디어실, 문해교실 등 교육공간과 커뮤니티실, 북카페, 학습동아리실, 스튜디오, 옥상정원 등의 소통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익산시는 건립 과정에서 시민공청회를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설계안에 담아낼 구상이다. 이 공간을 활용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평생학습관 등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균형과 공정의 평생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